

## 湯顯祖의 〈茶馬〉詩 小考\*

오창화\*\*

### 〈목 차〉

1. 들어가면서
2. 탕현조와 茶詩
3. 역대 茶政과 ‘茶馬互市’
4. 〈茶馬〉詩 考析
5. 나가면서

### 1. 들어가면서

唐宋 이래 四川, 陝西 일대 서북 변방에는 ‘茶市’와 ‘茶馬司’를 두어 관치를 통한 민간교역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明代에 이르러 이전보다 훨씬 쌍방의 교역량이 증가하고 교역의 규모도 확대되었다. 《明史》권80 〈茶法〉에서 이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기록이 있어 참고할 만하다. 〈茶馬〉시<sup>1)</sup>는 극작가이자 시인, 학자로서 뛰어난 족적을 남긴 湯顯祖(1550~1616)가 남긴 작품으로서 바로 명말의 ‘茶法’, ‘茶政’을 소재로 하고 있는 특이한 시이다. 湯顯祖는 생전에 ‘비성인’의 책을 애독하고 ‘기의’가 있는 선비들과 널리 교제하면서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등 외향적인 성격을 보여주었으나 성품이 정직하고 강직한데다가 권세에 아부하지 않는 청렴한 관직생활을 했던 인물이다. 그는 여러 한직을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경성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성대학교 중국대학 교수(o1129@ks.ac.kr)

1) 湯顯祖 撰, 徐朔方箋校, 《湯顯祖詩文集》第二十卷, 玉茗堂詩之十五, 上海古籍出版社, 1982, pp.808~809에 수록된 것을 저본으로 하였음. 〈茶馬〉시는 언제 지어진 것인지 분명치 않다.

전전하다가 “不如掩門自貞(집안에 은거하면서 스스로 정절을 지키느니만 못하다)”는 생각을 굳히고 독서와 시문창작 등에 몰두하다가 일시 浙江 遂昌의 知縣에 임명되어 선정을 펼치기도 했으나 이 역시 고관대작들과의 교제가 없었던 탓에 6년 동안이나 승진을 하지 못하자 과감하게 벼슬을 버리고 고향인 臨川으로 돌아가 玉茗堂을 짓고 훗날 明清 傳奇 중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게 되는 《牡丹亭》을 완성한다. 그때가 湯顯祖 나이 49세였다. 湯顯祖가 처한 시대는 문단이 擬古思潮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었다. 前七子를 계승한 後七子가 맹위를 떨치고 있었던 것이다. 湯顯祖가 21세 때 後七子の 리더였던 李攀龍이 세상을 떠났으나 王世貞이 득세하여 문단의 맹주가 되고 20년 동안이나 자리를 지켰다. 탕현조는 그들의 형식적인 복고풍조를 비판하는 입장에 서 있었다. “한대와 송대의 문장은 제 나름대로 그 풍취를 다하고 있다(漢宋文章, 各極其趣)”는 것이 탕현조의 생각이었고, ‘自然靈氣’의 묘를 추구하였다. 탕현조의 詩창작은 젊은 시절에 六朝의 화려한 시풍의 영향을 받아 ‘詩必盛唐’의 당시 풍조에 대항하는 입장이었으나 宋詩의 난삽한 풍격을 답습하는 등 의고파의 문풍이나 시풍을 극복하는데 그다지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그의 고문은 주제담론이나 변론에 장기를 보인 의론문이 주류를 이루었다. 특히 그의 서간문은 감정이 풍부하고, 문필이 유창하여 후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다만 탕현조의 성가는 후대로 갈수록 시문보다는 희곡작품에 무게가 실리는 통에 그의 시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현재까지도 지지부진한 현상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茶馬>시 역시 원래는 별로 주목받지 못한 작품이었으나 최근 ‘茶馬古道’가 세간에 화제가 되면서 차의 통상루트를 방증하는 자료로 부각되어 일반에게도 널리 소개된 바 있다. 이 시에는 당대부터 역대 왕조를 거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차의 인문지리학적 배경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를 통해 목민관으로서 당당했던 탕현조의 경륜과 애국적인 시국관, 명대 조정의 茶政과 관민의 의식구조 등을 두루 조명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객관적인 시각에서 평을 하자면 이 시는 탕현조의 시

풍을 대변할 만큼 예술성이 두드러진 작품은 아니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흔치 않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차를 둘러싼 시사적인 문제를 정곡을 찌르는 주제의식을 가지고 진솔한 어조로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일고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 2. 탕현조와 茶詩

탕현조의 고향은 당송팔대가의 한 사람이자 송대 개혁정치를 주도했던 王安石이나 曾鞏과 마찬가지로 江西省 臨川이다. 이 臨川 주위의 撫州나 遂昌은 차의 산지로 예로부터 유명한 지역이다. 탕현조 자신이 차를 즐기고 차문화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은 그가 堂號를 玉茗堂이라고 명명하고 그 자신을 玉茗堂主人이라 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탕현조 자신이 遂昌의 知縣으로 있을 때 그곳의 차를 음미하고 남긴 <竹院烹茶>시는 그가 평소 얼마나 차를 즐겨 마셨는지를 가늠케 해준다.

君子山前放午衙, 관아 일을 마친 오후 군자산 앞,  
濕烟靑竹弄雲霞. 안개 자욱한 푸른 대나무 숲으로 노을이 지네.  
燒將玉井峰前水, 옥정봉 감천수로 찻물을 끓여,  
來試桃溪雨後茶. 도계산 우후차의 맛을 보세나.

늦봄, 여름의 문턱에서 비가 개이고 안개가 자욱이 낀 어느 날 오후 군자산 앞 관아 안에 있는 죽원에서 玉井峰에서 길러온 甘泉水를 끓여 桃溪産 햇차인 雨後茶를 마시는 여유로운 모습이 이 시에 담겨있다. 이 시는 情景交融의 경지를 그린 한 폭의 茶畵를 연상시킨다.

탕현조는 그의 주요 관심사이자 특기였던 昆曲 외에 지방에서 공연되는 각종 民間小戲에도 관심을 갖고 있었다. 탕현조는 어느 날 江西 지역 민간 연극의 연출자를 만나 차를 마시면서 회포를 나누다가 헤어졌는데, 그 때의 정경을 <看采茶人別>시에 담았다.

粉樓西望淚眼斜, 극장 저 너머 서쪽 하늘 바라보며 눈물이 글썽,

畏見江船動落霞. 강물에 출렁이는 배 노을마저 흔들어놓나.  
四月湘中作茶飲, 춘사월 상강에서 마시던 차,  
庭前相憶石榴花. 뜰에 피었던 석류꽃이 기억 속에 새록새록.

萬曆 26년(A.D.1598) 탕현조는 龍游 溪口鎮을 지나면서 봄날 차를 따는 소녀의 모습을 보고 <題溪口店寄勞生希召龍游二首>를 지었다. 그 중 제1수를 보자.

穀雨將春去, 곡우를 지나면서 봄날은 간다.  
茶烟滿眼來. 안개 자욱한 차밭이 온통 눈을 채우는데,  
如花立溪口, 계구 차밭에 꽃처럼 서 있는 게,  
半是采茶回. 차를 따는 소녀들인가 하노라.

溪口는 遂昌과 龍游의 교차점에 있는 아담한 고을인데, 탕현조는 遂昌 가는 길목에 溪口를 지나가야 했다. 그는 안개가 자욱한 길가에서 우연히 차밭에서 차잎을 따는 꽃처럼 청초한 소녀들을 발견하고 수채화 같은 한 편의 시에 담은 것이다.

탕현조가 雁蕩山에 유람차 갔다가 현지의 차농가에 들른 김에 지은 茶詩 <雁山種茶人多阮姓, 偶書所見(안탕산에서 차를 재배하는 농부 가운데 완씨 성을 가진 사람이 많아 문득 떠오르는 생각을 적는다)之一>를 보면,

一雨雁山茶, 부슬비 내리는 안탕산의 차밭,  
天台舊阮家. 천태산의 완씨네 집성촌.  
暮雲遲客子, 저녁노을은 나그네의 발길을 더디게 만들고,  
秋色見桃花. 질어가는 가을빛 복사꽃에 어린다.  
壁繡莓苔直, 절벽을 수놓은 푸르른 이끼,  
溪香草樹斜. 구부정한 나무 사이로 골짜기를 휘도는 향긋한 풀내음  
風簫誰得見, 어디선가 들려오는 피리 소리,  
空此駐雲霞. 텅빈 공간엔 노을 진 구름만 가득.

탕현조가 살던 그 시절 雁蕩山에 거주하며 차농사를 짓던 사람 중에 유난히 阮氏 姓이 많았던 모양이다. 그는 이 阮氏 姓에서 우연히 劉晨

과 阮肇가 天台山에 들어가 약초를 캐다가 선녀를 만났다는 전설을 연상하였다. 이 시는 전형적인 ‘觸景絃情’의 경지를 그린 시임을 알 수 있다. 그 시상의 발단이 된 것은 다름 아니라 雁蕩山の 심산유곡에서 자라는 차가 전해주는 신비감이다. 武夷山이나 雁蕩山 등 심산유곡에서 자생하는 차는 그 자체의 품질도 우수하거니와 그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서 인구에 회자하는 많은 전설을 생성하는 매체적인 역할을 하였다. 湯顯조도 雁蕩山の 차를 보고, 그곳에 거주하는 茶人들의 정체성에 신비감을 더하는 시를 짓게 된 것으로 보인다. 雁蕩山을 소재로 한 그의 <雁山迷路> 역시 그런 신비감이 포장된 인상을 주는 시이다.

借問采茶女, 찻잎 따는 여인에게 물었네,  
烟霞路幾重. 안개 자욱한 저 대룡추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屏山遮不斷, 병풍처럼 산이 둘러있긴 하지만,  
前方剪刀峰. 저 앞에 전도봉을 돌아서면 된다네.

雁蕩山에 있는 大龍湫폭포는 중국 四大名瀑의 하나이다. 시 속에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剪刀峰과의 거리로 추산해보면 바로 이 폭포 근처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차밭에서 차를 따는 여인에게 길을 물어본 것으로 보인다.

湯顯조의 대표작이자 臨川四夢의 하나인 <牡丹亭>에는 도처에서 차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펼쳐진다.<sup>2)</sup> <牡丹亭> 第八齣 勸農에 보면, 南安 지역 采茶歌舞戲의 한 장면이 극중극 형태로 연출되고 있다.

……【전장】〔노단, 축이 차를 따서 담은 광주리를 들고 등장하며〕  
곡우시절을 맞이하여 일년이 창처럼 뽕족하고, 일이 기처럼 퍼지고,  
금줄처럼 가느다란 햇차잎을 따노라. 여기에 관리들이 어떤 일이지?  
그녀를 녹이려온 학사인가, 그녀를 몹시 그리워한 서생인가, 안개 자

2) 《牡丹亭》에는 무려 26차례나 차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다. 비록 연극 속의 상황설정이긴 하지만 대부분 작자의 직접적인 경험이 없이는 다루기 어려운 내용이라는 점에서 명대 당시의 보편화된 차문화를 반영한 살아있는 문화자료라고 할 수 있다. ‘早茶’, ‘午晌茶’, ‘茶食’, 정혼 때 차를 마시는 풍속인 ‘下茶’(‘茶定’, ‘受茶’라고도 함) 등을 언급한 대목에서 다양하고 생생한 당시의 차문화를 읽을 수 있다.

옥한 대나무숲에 번듯한 기와로다. [外] 거참 멋진 노래로구나. 아서라, 우정의 학사도 아니고, 양선의 서생도 아니다. 이 고을 사또가 격려자 남신 것이다. 뽕잎을 따고, 찻잎을 따는 아녀자들 모습이 꽃을 따는 것보다 더 멋지구나. 이런 노래가 있지. “다 있다는 하늘에는 茶星만 없고, 지하에서는 온갖 화초보다 먼저 꽃을 피운다지. 한가로운 여인네는 풀싸움을 즐기고, 아무리 멋진 풍광도 차 겨루기만 못하네.” 술 가져오고, 머리에 꽃을 꽂도록 하라. [노단, 축이 머리에 꽃을 꽂고, 술을 마시는 동작을 한다] [다함께] 사또와 함께 취하여 노을을 흘려보내고, 산들바람 맞으면서 꽃을 꽂고 함박웃음을 지으니, 차를 따는 여인들이 너무나도 멋지구나. [퇴장] [생, 말이 무릎을 꿇는 동작을 한다] 사또 나오리, 마을 어르신들이 음식과 차를 마련하여 모시러 왔습니다. [外] 필요 없느니라. 꽃이 있고 술이 있으면 그만이다. 어르신들더러 그 음식을 가져다가 젊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사또의 격려하는 마음을 알게 될 거라고 일러라. 여봐라, 출발하자. ....3)

이 대목은 비록 짧은 장면이긴 하지만 采茶, 詠茶, 泡茶, 敬茶 등 茶道의 핵심과정이 그대로 담겨있다. 탕현조가 이 극을 집필하기 직전 南安을 두 차례 방문하였고, 그곳의 風情을 담은 시문을 남긴 것으로 미루어보아 현지에서 采茶戲 공연을 인상 깊게 봐두었다가 극중에 수용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내용인즉, 南安태수 杜寶가 성문 밖 淸樂鄉이란 곳으로 놀러나갔다가 그 지역 주민들의 영접을 받는 장면이다. 고을 원로들이 주동이 되어 대거 태수 일행을 영접하는 뜻에서 고을의 민속을 반영한 가무를 연출하는데, 작자의 선지식이나 견문이 없이는 이렇게 생동하는 장면을 그려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 대목에서 탕현조의 소박하면서도 친화적인 성품과 탈권위적인 목민관으로서의 경륜이 南安태수 杜寶의 형상에 겹쳐짐을 직감할 수 있다. 명대 당시 강서지역은

3) <牡丹亭> 第八齣 勸農 : “……【前腔】 [老旦、丑持筐采茶上] 乘穀雨, 采新茶一旗半槍金縷芽. 呀, 什麼官員在此? 學士雪炊他, 書生困想他, 竹烟新瓦. [外] 歌的好. 說與他, 不是郵亭學士, 不是陽羨書生, 是本府太爺勸農. 看你婦女們采桑采茶, 勝如采花. 有詩爲證: ‘只因天上少茶星, 地下先開百草精. 閑煞女郎貪鬪草, 風光不似鬪茶清.’ 領了酒, 插花去. [老旦、丑插花, 飲酒介] [合] 官裡醉流霞, 風前笑插花, 采茶人俊煞. [下] [生、末跪介] 稟老爺, 衆父老茶飯伺候. [外] 不消. 餘花餘酒, 父老們領去, 給散小鄉村, 也見官府勸農之意. 叫祇候們起馬. ……”

撫州, 南昌, 贛南 등 차가 양산되는 곳을 중심으로 민간공연예술 형태의 采茶戲가 광범위하게 유행하고 있었다. 탕현조 역시 그런 민속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그의 회곡 속에 한 장면으로 수용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민속과 시, 연극 등의 매체적인 수용과정은 采茶戲를 비롯하여 남방의 국부적인 차문화가 차츰 지역문화의 경계에서 벗어나 전국적이고 전방위적인 인문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추동력을 제공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탕현조는 시인이라기보다 극작가로서 명성을 한 몸이 받고 있었지만 그가 남긴 시가 무려 二千二百餘 수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의 진면목이 그 많은 시 속에 어떤 형태로든지 반영되어 있을 것은 자명하다. 그가 남긴 시를 조목조목 여과해 나간다면 그의 감정세계는 물론이거니와 시대와 사회를 보는 식견과 사상까지도 더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여러 학자들이 그의 시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터이지만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가령, 차문화에 관한 탕현조의 인식범주와 명말의 문단이나 무대활동과의 연계성 등은 좀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한 대목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미진한 편이다.

탕현조가 남긴 몇 편의 茶詩를 통해 그의 고향을 비롯한 주위의 산지가 온통 양질의 차를 생산하는 곳이었다면 만큼 그가 차를 생활 속에서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이었음을 알 수 있다. 탕현조는 차를 마시는 것이 일상의 여유이자 즐거움이라고 토로한 바 있지만 정작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차에 관한 시문을 그다지 많이 남기지는 않았다. 탕현조는 형이상학적인 다도의 경지를 담은 茶詩보다는 차의 사회적 기능, 생산성에 오히려 더 큰 관심을 갖고 <茶馬>시나 <邊市歌>와 같은 목직한 주제의 사회시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의식이 있는 관리로서 차의 문화적 기능, 道樂的 기능보다는 그 차로 파생된 사회적, 경제적 기능에 더 주목하고 있었음에 분명하다. 탕현조에게 차는 정서적 동반자이자 국력신장의 방편으로서 전략적 물주였던 셈이다. 차는 허약한 국가재정을 만회할 수 있는 세원이 되고, 변방지역 너머 이민족들과의 호혜무역을 통한 국방물자 조달을 가능케 하는 물목이라는 점을 탕현조는 누구보다도 절실하고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茶政, 茶法과

같은 중차대한 정책과 제도가 탕현조의 우려처럼 누구를 위해 마련된 것인지 모를 정도로 시행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었다. 다음 장에서 상세하게 살펴보겠지만, 明代 말엽의 「茶馬互市」는 본래의 생산적인 의도와는 달리 조직을 좀먹는 탐관오리나 제 밥줄만 챙기는 영악한 악덕상인들의 무분별한 착폐, 伏地不動, 安逸無事에 빠져 소명감을 상실한 말단 관리들의 지리멸렬한 행위 등이 겹치면서 외곽에서부터 국력이 급격하게 잠식당하는 결과를 빚고 말았다. 인간과 사회의 근본적인 혁신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推行은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변방의 통제력을 극도로 약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탕현조는 바로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자신이 느낀 참담한 심정을 충정어린 현실비판의 시로 표출하였던 것이다.

### 3. 역대 茶政과 ‘茶馬互市’

차에 관한 각종 중국 사료의 기록이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현존하는 사료의 기록에 따르면 중국차가 해외로 전파되기 시작한 시점은 南北朝시기로 여겨진다. 당시 상인들은 몽골과의 접경지역에서 물물교환 방식으로 터키 등지로 차잎을 수출한 것으로 보인다. 隋唐시기에는 변방의 무역시장이 활기를 띠고 실크로드가 개통되면서 본격적으로 茶馬교역의 방식을 통해 당시로서는 희귀품목에 해당하던 중국차가 回紇, 西域 등을 경유하여 서아시아, 북아시아, 아랍, 러시아, 유럽 각국에까지 널리 퍼져나갔다.<sup>4)</sup>

특히 唐代에는 차의 경제적 가치에 주목한 관료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여 차의 유통구조와 세수정책을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다시 말해서 이전의 자유무역 형태의 茶馬교역이 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받는 보호무역 형태로 전환된 것을 의미한다.

4) 唐 封演의 《封氏見聞記》에 보면, “……始自中地, 流于塞外. 往年回鶻入朝, 大驅名馬市茶而歸, 亦足怪焉([차문화가] 중국 내지에서 비롯되어 국경 너머로 흘러들어갔다. 왕년에 위구르가 입조할 때 양질의 말을 대거 몰고 와서 차와 교역하고 돌아갔는데, 이상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당나라 때 이미 중국 내지와 변방 족속과의 차마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唐 肅宗 至德元年(A.D.756)부터 蒙古의 回紇지역에서 차와 말이 교역품으로 등장하였고, 그 후 지속적으로 대내외적인 차의 교역량이 늘어나면서 唐 德宗 貞元九年(A.D.793)부터는 관청에서 아예 茶稅를 징수하기 시작하였다. 貞元 말년에 이르러 변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군대를 확충하였는데, 기마병들이 탈 말들과 군수품 운송용 말의 확보가 시급한 현안문제가 되었다. 다행히 서북지역에 거주하던 소수민족은 말을 많이 비축하고 있었지만 차가 전혀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 내륙에서 차를 수입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였다. 당 조정과 변방 민족의 쌍방간의 이해득실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면서 변경무역시장을 개설하여 서로 필요한 물품인 차와 말을 맞교환하기 시작하였다.<sup>5)</sup> 이 시기의 「互市」가 후대 본격적인 茶馬교역의 실질적인 효시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北宋 때는 주로 陝甘지역에서 茶馬교역이 이루어졌다. 교역시에 필요한 차는 중국 서남지역에서 산출되는 것으로 충당하였고, 교역 및 징세의 관리, 운영을 담당하는 榷茶와 茶馬司<sup>6)</sup>를 각각 成都와 秦州(지금의 甘肅省 天水)에 두었다. 송 조정은 변경을 안정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제도를 정비해가면서 대대적으로 ‘茶馬互市’ 정책을 추진하여<sup>7)</sup> 변방 족속, 특히 서남지역의 티베트족을 견제하는 전략적 효과를 거두었고, 부수적으로 군마를 확보하고 군수조달을 위한 재정충당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元代에는 변방정책의 전면적인 조정에 휘말려 茶馬교역을 활용한 군사력 강화, 변방방어정책이 설득력을 잃고 폐지되는 운명을

5) 《新唐書·隱逸列傳·陸羽傳》에 보면, “時回紇入朝, 始驅馬市茶(이 때 위구르가 당 조정을 공식방문하면서 비로소 말을 몰고와서 차와 교역하기 시작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초기에 물물교환된 말은 주로 위구르지역에서 나는 말 이었고, 중국차는 漢中·安康 등지에서 산출된 소위 陝南茶였다.

6) 茶馬司의 직책은 “掌榷茶之利, 以佐邦用; 凡市馬于四夷, 率以茶易之(차의 독점판매를 통한 이윤을 창출하여 국가 재정에 보탬이 되게 하고, 사방 오랑캐와의 말교역에 차를 수단으로 맞바꾸는 일을 관장한다).”(《宋史·職官志》) 이 茶馬司의 성격과 직무가 분명해진 송 太宗 太平興國八年(A.D.983) 무렵을 진정한 의미에서의 ‘茶馬互市’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7) 가령, 송 神宗 熙寧七年(A.D.1074) 茶馬法을 시행하여 成都에 都大提舉茶馬司를 두어 정무를 담당하게 한 것이 일례이다.

맞이하였다.

그러다가 명대 초기에 茶馬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조정에서는 이 제도를 다시 부활함과 동시에 서북지역의 거주민을 통제하는 중점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초강수를 두었다. 茶馬정책에 관한 한 명대는 송대보다도 더 정치적인 목적이 분명했다고 볼 수 있다.<sup>8)</sup> 통계상으로는 한 동안 변방지역에서 활발한 교역이 성사되고, 중국 전역의 차산업 자체가 호황을 맞이하여 空前의 황금기를 구가하였다. 가령, 明太祖 洪武 연간에는 上等의 말 한 필이 찻잎 120근과 교환될 정도로 고가에 거래되었고, 明神宗 萬曆연간에는 上等의 말 한 필에 찻잎 30匁, 中等은 20비, 하등은 15비 등으로 거래될 정도였다. 탕현조는 바로 이런 거액의 자금과 물품이 오고가는 茶馬교역의 현장에서 부작용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사회적 문제를 애국적인 심정을 담아 시 속에서 거론하게 된 것이다. 명대 기록에 따르면, 당시 변방에서는 대규모의 공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사리사욕에 눈이 먼 상인들이 밀무역도 서슴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sup>9)</sup>

清代 초기에는 元代처럼 茶馬교역 자체를 폐지하지는 않았지만 변방 관리가 소홀해지면서 私貿易이 성행하게 된 데다가 차의 소비량은 늘어나는 반면 양질의 말 확보량이 갈수록 줄어드는 폐단이 발생하였다.<sup>10)</sup>

8) 明代 楊一清이撰한 《關中奏議》 十卷 가운데 특히 卷一과 卷二의 <馬政類>와 卷三의 <茶馬類>는 楊一清이 弘治十五年 副都御史로서 陝西의 馬政을督理할 때 奏請한 문건들인데, <爲修復茶馬舊制以撫馭番衆安靖地方事(과거에 시행했던 차마정책을 수복하여 변방 이민족 사람들을 제어하고 지역을 안정시킨 일)>, <爲修復茶馬舊制以撫馭邊人安靖地方事(과거에 시행했던 차마정책을 수복하여 변방 사람들을 제어하고 지역을 안정시킨 일)> 등의 글을 통해 당시 명 조정의 ‘茶馬’정책이 얼마나 절실하고 긴박한 것이었나를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9) 明人 何孟春의 《餘冬序錄摘抄內外篇》을 보면, 歐陽倫이란 자가 사천에서 차를 밀무역하는 운송수단으로 말이 끄는 큰 수레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한번에 무려 50대나 동원하여 차를 운반했다고 하니 그 교역의 규모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10) 《清史稿》를 보면, 陝甘지역에서 番馬의 물물교환이 이루어졌는데, 청대前期에는 매년 11,088필 정도였고, 나중에 2000필이 추가로 증가하여 총 13,088필이 교환되었다고 하니 이 말들과 교환할 차는 무려 100만근 이상이 소요되어 섬서 지역의 七府一廳이 모두 동원되어 차 물량을 확보하느라 애를 먹기도 했으나 정작 중국에 수입된 말들의 질은 담보하지 못한 채 숫자만 늘

다시 말해서 의미 없는 國富 유출이 점점 심각해진 것이다. 급기야 雍正十三年(A.D.1735) 건디다 못한 청나라 조정은 官營형태의 茶馬교역 제도를 폐지하기에 이른다.

변방의 차교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륙에서 변방으로 차를 수송하고, 변방으로 들어오는 말의 집산과 목축관리를 하는 루트와 거점이 마련되어야 가능한 일이었다. 이른바 험준하고 고도가 높은 척박한 산길을 횡단하는 茶馬古道라고 하는 루트가 자연스럽게 개발되어 원시적인 운송망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었다.

이 茶馬古道는 다소 설이 분분하긴 하지만 순전히 물물교환 형태의 茶馬교역이 이루어지던 초기 형태의 陝甘루트, 四川省 雅安을 기점으로 하여 康定·巴塘·昌都를 거쳐 西藏, 네팔, 인도로 이어지는 루트, 雲南 보이차 산지(西雙版納·思茅 등지)에서 大理·麗江 등지를 거쳐 邦達·察隅·昌都·라사 등 西藏의 주요 도시, 멀리는 버마·네팔·인도로까지 이어지는 루트 등 크게 세 갈래의 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기본 루트를 중심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샛길이 그물망처럼 나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이 세 루트의 교역로는 공통적으로 인적이 거의 없고, 교통이 발달할 수 없는 험산준령, 심산유곡, 설원이나 고원지대의 척박한 자연환경 속에서 개척된 길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차를 수송하는 운송수단은 말이었고, 변방 지리에 익숙한 건장한 마부가 이들 말과 함께 생사를 건 길고 힘든 여정을 소화해 내어야 했다. 따라서 그들은 장사꾼이자 험난한 루트를 개척한 탐험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탕현조의 <茶馬>시도 이런 특수한 인문지리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이해가 전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4. <茶馬>詩 考析

전술한 바와 같이 <茶馬>시는 湯顯祖의 화려한 六朝 시풍이나 난삽한 宋詩의 풍격과 달리 매우 담백하고 평이한 시어를 구사하며 사실적인 표현을 통해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以詩論事’의 時事的 안목과

---

어나는 추세였던 것이다.

牧民官으로서의 경륜<sup>11)</sup>이 어우러져서 표출된 것으로 본다. <茶馬>시는 애석하게도 창작년도가 명기되지 않아 현존하는 文史자료만으로는 창작 시기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sup>12)</sup> 다만 탕현조가 40세~42세 무렵에 지은 것으로 보이는 <萬侍御赴判劍州, 過金陵有贈(만시어<sup>13)</sup>가 김주의 지방관으로 부임하면서 금릉을 지나는 차에 선물을 전하면서)>(1590)의 부제에 “君以邊事論政府行(그대를 변방에 보내는 일을 두고 정부를 논한 시)”라고 한 대목이나 시구 가운데 “倍有金縑去, 毫無善馬來(황금 비단을 곱절이나 가져갔는데도 쓸만한 말을 전혀 보내오지 않네)”라고 한 대목으로 미루어 보면 <茶馬>시 역시 이 무렵에 지은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또한 동년에 지은 것으로 보이는 <邊市歌>는 주제나 소재가 <茶馬>시와 매우 흡사하고, 내용 역시 시사적인 연계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통해 <茶馬>시의 저작시기를 어렵פות이나마 추정해 볼 수도 있겠지만 심증만 가지고는 확실한 저작시기를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

也知善馬不能來, 질이 좋은 말이 올 리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去去金縑可復回. 황금과 비단은 가고 또 가고 반복이 되는구나.  
未愁有虜驚和市, 오랑캐가 평화스러운 변방의 시장을 뒤흔들까 미처  
근심하기도 전에  
且是無人上敵臺. 적진을 향해 나아갈 사람이 아예 없구나.  
別有帳中稱寫契, 계약을 맺는답시고 상대 진영으로 들어가기도 하지  
만  
解誘邊人作奸細. 회유당한 변방사람 첩자가 되고 마네.  
上郡心知虜騎熟, 위사람들이야 오랑캐가 말을 잘 타는 것을 마음으로  
만 짐작할 뿐이지만,  
西州眼見孤軍綴. 서주 사람들은 줄줄이 고립무원 상태가 된 군사들을

11) 湯顯祖가 浙江 遂昌의 知縣을 맡고 있던 5년 동안 얼마나 선정을 베풀었던지 태형을 받은 부녀자가 한 사람도 없었고, 사형을 당한 범인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기록이 그것을 말해준다.

12) 《湯顯祖詩文集·卷二十》(玉茗堂詩之十五)에 실린 [不編年詩一百七十七首] 중 한 수로 실려 있다. 同書 pp.808~809 참조.

13) 明 神宗 때 征拜御史, 南京刑部郎中을 지낸 萬國欽을 가리킴. 《明史·列傳第一百十八》에 그의 약력이 전한다.

직접 목도하고 있다네.  
也先種色何紛紜, 아무리 먼저 종마를 번식시키자고 의견이 분분해도  
五千餘里瞰胡羣. 수 천리 널린 것이 오랑캐 무리일 뿐이네.

이 시에 대해 《玉茗堂選集》을 輯한 沈際飛는 “邊事弊極矣, 存此以警當事者(변방의 일들이 폐단이 너무 심한 나머지 이 시를 남겨 당사자들에게 경고를 하려 한 것이다).”<sup>14)</sup>라고 하였는데, 이 역시 <茶馬>시에서 湯顯조가 당시 변경에서의 互市무역이 關稅의 전횡으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개탄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 시사해주는 바가 적지 않다.

아무튼 <茶馬>시가 湯顯조가 현직에 있으면서 애국적인 심경과 당시 혼란스런 정국, 변방정세 등을 아우르면서 지은 시라고 본다면 湯顯조 자신의 정치적 의욕이 넘치고 가장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쳤던 시절에 지은 시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 秦晉有茶賈, 楚蜀多茶旗. 섬서와 산서에는 차상이 있고, / 호남과 사천에는 차잎이 많다.

a. ‘秦晉’은 陝西와 山西를 가리키고, ‘楚蜀’은 湖南과 四川을 가리킨다. 한 마디로 茶馬交易이 중국의 남북을 관통하는 통상라인을 구축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명대에 茶馬互市에서 茶葉 경영을 주도하는 상인들은 대부분 陝西지방의 상인, 즉 秦商과 山西지방의 상인, 즉 晉商이었다.<sup>15)</sup> 그들이 취급하는 茶葉은 陝西와 漢中에서 산출되는 차엽 뿐만

14) 前揭書, 卷九(玉茗堂詩之四)의 <邊市歌> 評 참조. pp.288~289.

15) 《清史稿·食貨志·茶法》의 기록을 보면, “명나라 때는 차에 관한 법이 세 종류가 있었다. 첫째는 관차로서, 변방에 저장해 두었다가 말과 바꾸었다. 둘째는 상차로서, 상인들에게 허가를 내주고 세금을 징수하였다. 셋째는 공차로서, 궁중에서 사용하는 것이었다. 청조에서도 이 제도를 답습하여 섬서 감숙 지역에서는 오랑캐 말과 교역하고, 다른 성에서는 상인들을 초치하고, 허가증을 내주며, 납세를 하도록 하였다(明時茶法有三：曰官茶，貯邊易馬；曰商茶，給引徵課；曰貢茶，則上用也。清因之，于陝甘易番馬，他省則召商發引納課).”

아니라 湖南의 ‘黑茶’와 四川의 ‘蜀茶’까지 교역물품으로 확보하여 다양한 품미를 찾는 소비자의 기호와 욕구를 만족시키는데 대처하였다. 茶馬互市에 투자하는 茶商들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중적인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변화가 심한 국경 주변의 정세와 환경에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예민한 정치적 감각이 절실했기 때문에 넉넉한 이윤을 보장받지 못할 경우 그들에게 주는 허탈감과 박탈감이 엄청나게 컸다. 茶馬互市는 차상들에게 관로개척과 부의 창출이라는 이중의 과제를 안겨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고달픈 경영이었지만 茶문화의 전신자로서의 역할과 기능,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자산가로서의 자부심이 그들의 行商旅程을 지속하게 하는 힘이 되었을 것으로 본다.

b. 茶旗란 ‘旗’라고도 부른다. 차나무에서 갓 자라난 어린잎을 가리킨다. 宋代 葉夢得的《避暑錄話》에 “가장 빼어난 것은 갓 자란 어린잎이다. 작설처럼 갓 싹이 튼 잎을 취해 창이라 부르고, 약간 자라 잎사귀의 모양새를 한 것은 기라 부른다(其精者在嫩芽, 取其初萌如雀舌謂之槍, 稍敷而爲葉者謂之旗).”라고 하였다. 唐代 皮日休의 <奉賀魯望秋日遣懷次韻>에서 “차나무 잎은 비를 맞고 나서 활짝 자라고, 석순은 구름의 습기를 머금고 불쑥 자라 오르네(茶旗經雨展, 石筍帶雲尖).”이라 하였고, 宋代 趙佶의《大觀茶論》에서는 “茶旗는 차나무 잎이 어느 정도 자란 것인데, 찻잎의 맛이 씹쓸하다. 이런 찻잎이 지나치게 많이 자라버리면 처음에는 그 맛이 혀에 남아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간 다음에는 단맛이 느껴지지 않는다(茶旗, 乃葉之方敷者, 葉味苦. 旗過老則初雖留舌, 而飲徹反甘矣).”라 하였다. 湯顯祖의 「茶馬互市」에 대한 이해는 총체적으로 역사 인문지리에 대한 정확하고 예리한 지식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매우 비판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 金城洮河間, 行引正參差. 금성과 조하 사이에서는 / 상거래 허가가

라 하여 명대에 이미 공공의 기능을 하는 官茶, 조세의 대상이 된 商茶와 궁중 조달을 위주로 하는 貢茶의 제도적 장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니만

명대 당시 차의 교역을 관장하던 茶馬司가 ‘金城·洮河’ 일대에 설치되었는데, 그 자연환경과 인문지리적 가치소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일보한 고찰을 요한다.

a. 金城의 인문지리 : 상단을 이끌고 오고 가는 일이나 그 노선. 험준한 산맥이나 고원지대를 횡단해야 하는 지리적 난점이 상존하는 길을 나귀에 찾이를 가득 싣고 인적이 거의 없는 험하고 먼 길을 왕래해야 하는 운송의 난관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차상들이 낸 이 길을 새로운 형태의 실크로드라는 뜻에서 茶馬古道라 부른다. 金城은 현재 寧夏回族自治區 區都인 蘭州를 가리킨다. 蘭州를 金城이라 부른 것은 西漢 때부터이다. 蘭州는 黃河 상류의 古城으로, 신석기시대에 彩陶藝術로 빛나는 馬家窯文化를 일구었으며, 중국 청동기의 발원지이기도 하다. 이 蘭州는 夏·商·周 삼대에서 春秋시기에 이르기까지 古雍州의 氏羌牧地였었는데, BC215년 秦始皇 때 대장군 蒙恬의 西征으로 진나라 수중에 떨어진 후 隴西郡의 屬地가 되었다. 난주에 성을 쌓고 西北지역의 군사요새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 것은 西漢시기였다. 漢武帝 元狩2년(BC121) 霍去病장군이 匈奴를 정벌하고 개선하는 도중에 蘭州지역에 성을 쌓고 ‘金城’으로 명명하였다고 전한다. 金城의 寓意는 “성의 견고함이 마치 무쇠로 주조해놓은 것 같다(言城之堅, 如金鑄成)”, “견고하기가 마치 철옹성 같아 깨뜨릴 수 없이 튼튼하다(固若金湯, 堅不可摧)”는 수사적 비유가 무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金城’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는 설이 있고, 축성 당시 금이 발견되어 ‘金城’이 되었다는 설도 있다. 혹자는 이 성이 京城인 長安의 서쪽에 위치하여 五行 가운데 ‘金’자로 성명을 삼은 것으로 보기도 한다. 《韓非子·用人》에 “내부의 환란을 방지하지 않고, 먼 변경에 견고한 성을 구축한다(不謹蕭牆之患, 而固金城于遠境)”, 《管子·度地》에 “(안쪽에 성을 쌓고, 그 바깥으로 성곽을 쌓고, 그 바깥으로 흙으로 성문을 만들고, 그것을 금성이라 명명했다(內爲之城, 城外爲之廓, 廓外爲之土闐, 命之曰金城)”라는 말이 있는 것으

로 미루어 견고한 요새를 구축하였다는 의미에서 ‘金城’이라고 명명했을 가능성도 있다. 賈誼의 《過秦論》에 “금성은 천리(金城千里)”라 하였고, 《漢書·荊同傳》에 “금성은 철옹성이라 공략할 수 없다(金城湯池, 不可攻也)”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사실 지리적으로 蘭州는 산이 둘러싸고 강을 끼고 있는 형세라 쉽게 공략할 수 있는 땅이 아닌데다가 동쪽으로는 隴原, 서쪽으로는 陽關, 남쪽으로는 巴蜀, 북쪽으로는 朔方이 펼쳐 있어 서북방에 웅거하기 위해 兵家必爭의 요지였다는 점이 작용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漢昭帝 始元六年(BC81년)에 “변방의 요새가 너무 멀고 광활하고(邊塞闊遠)”, “서쪽 오랑캐를 대적해야(羌番爲敵)”한다는 이유로 金城郡으로 확대, 개편되어 13개 縣을 관할하는 요지가 되었다. 서기 265년, 鮮卑族인 乞伏國仁이 바로 이 金城<sup>16)</sup>에 西秦政權을 수립한 것으로 보아도 중원세력과 변방세력이 서로 차지하기 위해 쟁투를 벌이던 역사의 현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b. 洮河의 인문지리 : 洮河는 감숙성에 있는 黃河水系의 중요한 지류 중의 하나로서 감숙성에서는 세 번째로 긴 강이다. 青海省 河南蒙古族自治縣의 西傾山에서 발원하여 甘肅省 碌曲·臨潭·卓尼·岷縣·臨洮 등의 縣을 통과하고, 永靖縣 경내로 들어와 黃河와 합류한다. 岷縣 西寨 이상은 상류로서 계곡이 넓고 지세가 평탄하며, 강 양안으로 초원이 펼쳐진다. 西寨에서 臨洮縣의 海奠峽(倒流河口)까지는 중류로서, 河道가 완곡하고 협곡이 많으며 산림과 초원이 분포하고 짐차 물살이 빨라진다. 海奠峽 이하는 하류로서 계곡은 넓고 모래사장이 많은데다가 강 양안으로 황토구렁이 펼쳐져서 식물이 자라기 어렵고 토사 유실량이 많다. 이 洮河의 流域은 크게 甘南高原과 隴西黃土高原의 둘로 갈라진다. 양자는 대체로 西秦嶺山脈에서 뻗어 나온 白石山·太子山·南屏山을 일자 경계로 하여 南部는 甘南高原, 北部는 隴西黃土高原에 속한다. 甘南高原은 青藏高原의 동북방 변경 부분으로 해발고도가 3500~4000m에 달한다. 甘南高原은 산림이 뒤덮여있고, 대부분 평탄하고 광활한 草灘과 산기슭 草場을 형성하고 있어 목초가 많아 방목에 유리하다. 隴西黃土高原은 黃土高原

16) 현 蘭州市 榆中縣 경내를 가리킨다.



西部에 위치하며, 해발 1700~2400m이다. 황토로 뒤덮여 있고, 구릉의 기복이 심하고 땅이 척박하여 식물이 잘 자라지 않는다. 流域 내 河道가 지나는 길목은 비교적 넓은 河谷盆地를 형성하고 있다. 臨洮盆地와 廣河盆地 등은 넓고 평탄하며 기후변화가 심하지 않고 수원조건이 좋아 농사에 적합하다.

c. <茶馬>시에서 이 금성과 조하를 언급한 인문지리적 배경은 바로 이 두 지역이 군사적, 산업적인 차원에서 중원세력이 군침을 삼킬 정도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었음을 상기시켜주는 것이다. 금성과 조하로 연결되는 서북방의 광활한 지역은 군사적 요충지이자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집결한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지역은 중앙정부에서 워낙 오지로 멀리 떨어져있는 곳인지라 중앙에서 행정관이 파견되기 전에는 차의 생산관리나 상거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시인은 바로 이런 변경지역의 난맥상을 예리하게 지적하면서 비판하고 있다.

○ 繡衣來漢中, 烘作相追隨. 어사또가 한중에 오시니, / 제대로 만들어진 차 제품이 쏟아져 나오는구나.

a. ‘繡衣’는 일명 ‘直指’ 또는 ‘繡衣直指’, ‘繡衣直指使者’, ‘直指使者’, ‘繡衣御史’라고도 하였는데, 정식 관명은 아니다. 漢武帝 天漢二年(B.C.99)에 光祿大夫 范昆, 九卿을 지낸 張德 등에게 각지를 순시하며 정무를 처리하도록 특명을 내렸다. 순시에 나서는 관리들은 繡衣를 입고, 符節<sup>17)</sup>을 지녔다. 繡衣는 임금으로부터 존경과 충애를 받음을 상징한다. 直指는 《漢書·百官公卿表》의 顏師古注에서 인용한 服虔의 “정사를 지휘하여 수행하는데 아부하거나 사사로움이 없었다(指事而行, 無阿私也).”는 간단한 말에서 그들의 신분이나 역할을 읽어볼 수 있다. 漢荀悅의 《漢紀·武帝紀六》에 보면, “백성들의 힘이 떨어지고, 재물이 고

17) 虎符와 龍節을 가리킨다. 당시 병권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어사의 신분증 역할을 하였다.

갈된 데다가 흉년마저 겹쳐 사방에서 도적들이 날뛰는 통에 도로가 불통하고 있어 어사또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수의를 입히고, 부월을 지참케 하여 지방에서 도적들을 척결한 다음에 그만두도록 하였다(民力屈, 財貨竭, 因之以凶年, 羣盜并起, 道路不通, 直指之使始出, 衣繡衣, 持斧鉞, 斬斷于郡國, 然後勝之).”

b. 明清시대 漢中은 茶馬交易의 주요 거점이었다. 明代 당시 漢中에는 茶馬司를 두고, 巡茶御史가 파견근무를 하고 있었다. 漢中은 분지 형태로 陝西省 남부 秦嶺과 巴山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으로 漢江에 접해 있다. 明나라 天順元年(1457년)에 王斌이 농민반란을 일으켜 漢中을 차지한 사건이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王都가 된 적은 없었지만 군사적으로 요충지가 되기 때문에 역대 조정에서 고급 관리를 파견하여 다스리도록 하였다.

c. 烘作: 製茶의 과정 중 열을 가해서 수분을 없애면서, 찻잎을 건조시키는 공정을 烘焙라 하고, 이 烘焙의 과정을 거친 상품화된 찻잎을 ‘烘作’으로 표현한 것이다.

○ 以籠計分率, 半爲軍國資. ‘비’를 계량단위로 산출하여, / 절반은 국고 자금으로 충당하는데,

a. 명대 당시 차엽은 “籠(통발)”를 계량단위로 삼고 있었다. 상인들은 수확한 차를 7근을 한籠에 담아 찌고 말린 다음 茶司로 운반하여 관상이 절반씩 나누었다. 관방에서 확보한 차는 변방의 말과 바꾸고, 상인들이 확보한 차는 변방인들과 직거래를 할 수 있었다.<sup>18)</sup> 그러나 차의 상거래는 허가받은 상인에 한정된 것이었고, 밀무역, 밀거래는 엄격히 제

18) 申時行 등이 明 萬曆15년(1587)에 重修한 《明會典·茶課》 참조. “國初招商中茶, 上引五千斤, 中引四千斤, 下引三千斤. 每七斤蒸曬一籠, 運至茶司, 官商對分. 官茶易馬, 商茶給賣(개국 초기 초상중차 Solicit merchants for tea trade, 즉 통상허가를 받은 상인 가운데 상급은 5천근, 중급은 4천근, 하급은 3천근을 취급할 수 있었는데, 7근을 한 통발에 담아 찌고 말려 차사로 운반한 다음 관방과 상인이 절반씩 나누었다. 관방에서 확보한 차는 말과 바꾸고, 상인이 확보한 차는 판매를 할 수 있었다).”

한하였다. 이른바 “引”<sup>19)</sup>을 획득한 상인들은 茶區에서 차엽을 수매할 권리를 누리고 있었지만 그 절반은 茶馬司의 몫이었다. 이 시에서 운위 한 것처럼 “軍國의 資金”이라는 명분으로 세납해야 했는데, 그 성격은 바로 茶馬司의 茶馬交易에 필요한 경비조달이 주요 목적이었다.

b. 명대에는 차엽이 鹽鐵과 같이 이윤이 많이 남는 상품으로 국고를 충당하는데 효자노릇을 하고 있었다. 茶馬互市 정책의 근본 목적이 변방 이민족과 몽골족을 견제하기 위한 군방력 강화에 있긴 했으나 그에 따른 통상무역의 부수적 이익을 노리는 것은 관민이 한결같았다. 官의 입장에서는 세율을 높일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른 반작용으로 民의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영리를 위해 공공연하게 밀무역에 열을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폐단은 악덕 상인들과 결탁한 변방 이민족의 잇속을 채워주는데 반비례하여 互市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 지지 않자 말의 가격은 폭등하고 찻잎의 가격은 하락함과 동시에 중국에 들어오는 말이 갈수록 감소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sup>20)</sup> 게다가 좋은 군마는 영악한 상인들에게 넘어가고, 정작 茶馬司는 질이 낮은 말 밖에 확보하지 못해 국방력 강화라는 명분에 차질이 빚어질 정도였다.<sup>21)</sup>

○ 番馬直三十, 酬篋二十餘. 변방의 말 한 필은 직거래면 차 30근이지만, / 茶市에서의 수가는 20여 비나 되었다네.

19) 명대 당시 상인들이 화물의 운송과 판매에 필요한 라이선스를 ‘行引’이라 했는데, 여기서는 찻잎을 취급할 수 있는 허가증을 가리킨다. 상인들이 관청에 가서 허가증을 요청하는 것을 ‘赴官請引’이라 한다.

20) 《大明會典》 卷153 洪武30年(1397) 明太祖의 詔書 참조. “近者私茶出境, 互市者少, 馬日貴, 而茶日賤……檄令秦蜀二府發都司官軍……禁私茶出境(근자에 무허가 찻잎이 국경을 넘어가서 호시의 거래가 줄어 말값은 나날이 앙등하나 찻값은 나날이 하락하니……조시를 내려 명하니 섬서, 사천 지역의 관부에서는 관군을 동원해서……차의 밀무역을 단속하라).”

21) 《明史·食貨志四·茶法》: “番人上駟盡入奸商, 茶馬所市者中下也(변방인이 가진 상품의 말들은 죄다 악덕 상인에게 들어가고, 차마호시에는 중품 하품뿐이었다).”

이 구절은 비록 漢中 지역의 茶馬交易에 있어서 거래 성사를 위한 가격의 가이드라인과 이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를 언급한 대목이긴 하지만 국책사업으로 진행된 馬政, 茶政이 관리들과 상인들의 농간과 협잡, 비리와 부정이 변방인들의 기회주의적 책략과 겹치면서 난맥상이 드러나게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명대 당시 중국의 서북방이나 서남방의 변경에서 일반 상인들이 변방인들과 직거래를 하면 말 한 필당 평균 차 30근이면 충분하던 것이 茶馬互市에서 官番 교환무역을 할 경우 말의 가격이 평상시보다 터무니없이 비싸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기록에 따르면 明太祖 洪武16년(1382)에 永寧茶馬司의 경우 상등의 말 1필당 차 40근, 중등의 말은 1필당 차 30근, 하등의 말은 1필당 차 20근으로 교환되었으나 洪武30년(1394) 섬서 변경 너머의 말값이 중등의 말임도 불구하고 1필당 100근을 호가했고, 明孝宗 弘治16년(1503)에는 무려 390여근을 호가할 정도로 말의 질이나 시대에 따라 가격 편차가 심해졌음을 알 수 있다.<sup>22)</sup> 그나마도 후대로 갈수록 제 값을 주고도 양질의 말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져서 군수물자로서의 군마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국방력 강화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만력 연간을 살았던 탕현조는 바로 이런 변방의 경제질서를 꿰뚫어보고 경계의 메시지를 시구에 담은 것으로 보인다.

22) 이상, 《明太祖實錄》 卷156, 卷254 및 《明經世文編》 卷115를 참조. 참고로 《明會典·凡易馬》에 의하면, 成化十五년에 陝西巡茶御史가 招蕃易馬(변방 이민족을 불러들여 말을 교환함)한 기록이 있다. 차 100근을 질이 좋은 말 1필과 교환하였고, 차 80근에 중질의 말 1필과 교환하던 것이 상황이 갈수록 열악해지다가 급기야 正德十年에는 차를 담은 통발의 크기를 조절하여 임시변통을 하지 않으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以茶百斤易上馬一匹, 八十斤易中馬一匹(차 100근을 질이 좋은 말 1필과 교환한다).”, “正德十年, 以每年招易, 蕃人不辨秤衡, 止訂籠中馬, 籠大則官虧, 小則商病, 令均爲中制: 每一千斤定三百三十籠; 以六斤四兩爲準, 作正茶三斤, 籠繩三斤(정덕10년에는 매년 맞교환을 해왔지만 변방 이민족 사람들은 저울질을 이해하지 못하여 차를 담은 통발로 계산하여 말과 교환한 점을 고려하여 통발의 크기를 조정하였다. 통발이 크면 그 속에 담는 차의 양이 많아지므로 관청에서 손해를 보게 되고, 통발이 작으면 상인들의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작용이 생긴다. 그래서 고루 중간 크기로 통발을 제작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차 1000근을 330개의 통발에 담게 하였고, 6근 4량을 표준으로 하여 정품의 차 3근과 통발의 밧줄 3근이 되도록 하였다).”

○ 配軍與分牧, 所望蕃其鉤. 물물 교환된 말들을 군대에 배속하고 방목하면서, / 마구간에 넘치도록 번식하기를 기대하였건만.

명대 말기 茶馬교역의 주목적은 중국에서 양산되는 찻잎을 차가 재배되지 않는 변방지역의 민족에게 제공하고 대신 변방지역에서 자란 양질의 말들을 확보하여 군마로 양성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소중한 군마를 관리할 관리들과 군속들은 물자부족과 척박한 기후 탓에 고생이 심했다. 이들을 감독할 상급 기관은 거리상 통제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

○ 月餘成百錢, 豈不足青芻. 달포 남짓이면 백량짜리가 될 터인데, / 어찌 푸른 풀이 부족하단 말인가?

○ 奈何令倒死, 在者不能趨. 자칫 잘못되어 죽어 넘어가는 말도 있고, / 목숨이 붙어있는 말들조차 제 몸도 못 가누는데,

○ 倒死亦不聞, 軍吏相爲漁. 죽어 넘어갔다고 해도 들은 체도 하지 않고, / 아전들은 낚시질만 해대는구나.

a. 이상의 여섯 詩句는 값비싼 차를 주고 받아온 말들을 관리들이 관리를 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만하게 관리하여 영양실조로 비실대거나 굶어죽는 말마저도 생기는 관임을 직설적으로 지적한 대목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일선의 관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변방에서 관리하는 군마는 제대로만 목축하면 단기간에 질 좋은 말이 되어 경제적인 가치가 월등하게 제고되어 국방력 강화는 물론이고 경제력 향상에도 효자노릇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관리들 탓에 허망하게 국력이 새가는 현장을 시인이 직접 목도했거나 관계자의 증언을 들어 뼈저리게 통감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黑茶一何美, 羌馬一何殊. 흑차 1근이 아무리 맛이 없기로서니, / 서쪽 오랑캐 말 한 마리만 못할까만

a. 湖南의 黑茶는 지금으로부터 5백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sup>23)</sup> 湖南의 黑茶가 茶馬互市の 교환물품이 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애초 교역에 쓰이던 차는 주로 漢中과 保寧産 차였었다. 호남산 차가 질이 낮고 짝퉁차도 많아 변방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들이 빈번하여 교역 금지를 검토하기도 했으나 상대적으로 양산이 되고 치즈 등을 곁들여 마시기에 적당하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점차 漢中산 차를 대체하면서 주요 교역품목으로 부상하기에 이른다.<sup>24)</sup>

b. 湖南의 黑茶는 명대 말기 한창 대 서북지역 교역물량이 수만톤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규모였다. 이 黑茶를 품목으로 한 茶馬교역이 400여년을 이어오면서 변방 경제무역과 국방력 강화에 일정한 기여를 한 것은 분명하다. 현재도 확실한 통계치는 아니지만 거의 2만 5천톤 이상 변방의 소수민족이 소비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有此不珍惜, 倉卒非長驅. 이다지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니, / 창졸간에 장거리를 달리는 말을 찾아보기 어렵네.

탕현조는 갈수록 심해지는 변방의 교역을 둘러싼 비리, 부정부패의 만연에 개탄을 하고 있다. 그에 따라 악화되는 변방의 치안은 바로 군

23) 明 嘉慶3年(1524) 御史 陳講이 奏疏에서 “商茶低偽, 悉徵黑茶, 產地有限乃爲第上中二品(상품화된 차가 너무 저질이라 몽땅 흑차를 징발했는데, 산지가 제한되어 있어 上上 다음의 上中인 2품뿐이었다).”이라고 한 대목에서 黑茶라는 용어가 처음 출현한다.

24) 《明史·食貨志四·茶法》: “中茶易馬, 惟漢中、保寧, 而湖南産茶, 其值賤, 商人率越境私犯, 惟漢中, 保寧者僅一、二十引……當時御使李南說湖南茶質是低次又有假茶, 番人亦受其害, 主張禁止, 而御史徐僑認爲漢川茶少而值高, 湖南茶多而值下, 湖茶之行, 無妨漢中, 漢茶味甘而薄, 湖茶味苦, 于酥酪爲宜, 主張購, 戶部折衷其議, 以漢茶爲主, 湖茶佐之.”

마조달에 문제가 생겨 야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不珍惜’과 ‘非長驅’는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는가가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다.

○ 健兒猶餓死, 安知我馬祖. 건강한 아이도 굶어 주려 죽을 판이니, /  
내 말이 건재한 지 어찌 알리오?

사회가 피폐되고 인심이 흉흉해지는 상태 속에서는 공공의 힘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거금이 오고가는 변방의 교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악덕 상인들의 농간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이지만 그 비정상적인 교역에 의해 선량한 상인들이나 변방의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음은 중앙정부는 말할 나위 없고, 심지어 변방 근처에 설치한 감독관청에서조차 관리 감독이 소홀하거나 아예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터인지라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정할 능력을 이미 오래전에 상실한 상태라는 점이 당시 탕현조가 목도한 지방 행정의 실태였던 것이다. 명말 당시에는 변방의 말은 전쟁이 터졌을 때 전투와 운송을 담당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이었다. 명 조정은 초기 집권 때부터 줄곧 변방 경영을 통한 군비 확충과 민족간의 충돌을 저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군마 확보라는 절대 명제를 풀어보고자 茶馬교역에 힘을 싣고 있었으나 현실과의 괴리는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았던 것이다.

○ 羌馬與黃茶, 胡馬求金珠. 황차를 주고 서쪽 오랑캐 말을 구하고, /  
금불이로 북방 오랑캐 말을 구한다지만,

명말 변방지역에서 주된 교역품목이었던 羌馬와 胡馬는 질과 양에서 차이가 많이 났다. 서북지역에서 나는 羌馬는 힘이 좋고 동작이 빠른 편이었으나 몽골 초원지역에서 나는 말은 당나귀처럼 다리가 짧고 노둔하여 전투마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였다. 그런데 변방 관리와 악덕상

인들이 결탁하여 羌族이 가져오는 말은 값이 저렴하고 질이 나쁜 황차를 주고 교환하고, 몽골족이 가져오는 말은 오히려 비싼 값을 치루고 교환하는 아이러니컬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한 마디로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 없었던 것이다. 羌族은 질이 나쁜 차를 받고 좋은 말을 내줄 리 없었고, 몽골족은 넉넉한 값을 쳐서주므로 질이 좋건 나쁘건 상관하지 않고 닥치는대로 말을 내주고 이익을 챙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이 생겼던 것이다. 변방의 馬政이 지리멸렬해져서 관리도 소홀해진 탓에 국방력 강화를 목적으로 茶馬교역을 주도했던 조정의 정책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급속도로 무기력해지고 말았다.

○ 羌馬有權奇, 胡馬皆駘駘. 서쪽 오랑캐 말은 준마이나, / 북방 오랑캐 말은 모두 둔하기 짝이 없네.

탕현조의 지적대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한 차마교역이 와해되기 시작한 변방의 문제점의 일차적인 핵심은 국방력 약화이고, 그 다음으로는 변방의 치안이 중앙정부의 통제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었다. 羌馬와 胡馬의 우스꽝스러운 거래는 바로 명조정의 無力과 지방 官商의 부도덕한 행위를 해학적으로 풍자하고 있는 것이다.

○ 胡羌掠我羌, 不與兵驅除. 오랑캐들은 우리 변방을 넘나들며 약탈을 일삼지만, / 우리는 그들을 몰아낼 싸움을 할 엄두도 못내는 터.

호시탐탐 변방을 노리던 서북방의 소수민족들이 점차 발호하기 시작하였고, 허술한 변경을 넘나들며 변방에 거주하는 한족의 부락을 덮치는 사례가 갈수록 빈번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허약해진 明軍은 이에 강력하게 대응할 힘을 이미 잃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서북방의 이런 문제는 이 시에서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동북방의 변경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는데, 오래지 않아 동북방에서 발호한 만주족에 의해 명나라를 멸하고 중원을 차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羌馬亦不來, 胡馬當何如! 서쪽 오랑캐 말이야 오지 않겠지만, / 북방 오랑캐 말로 어찌 감당하리오?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에서 생산되는 차가 지역에 따라, 또는 같은 지역이라도 재배, 생산하는 茶農의 기술과 정성에 따라 질이 사뭇 달라지는 것처럼 변방지역에서 방목되는 말 역시 지역에 따라 품종이 다르고, 관리 여부에 따라 상품가치가 들쭉날쭉하였다. 힘이 좋고, 민첩하고, 지구력이 뛰어난 말은 주로 중국 서부 변경에서 주로 장족에 의해 길들여지는 羌馬가 대표적인 말이었다. 명대의 역대 황제들은 중신들이 건의한 ‘안변책’에 의한 변방 수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조정의 정치력이 약화되면서 변방의 軍政, 馬政이 느슨해지면서 끊임없이 변경을 넘나들며 소요를 일으키던 몽골족을 위시한 변방민족의 발호에 대해 실효적인 대처를 못하는 무기력함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본시 노둔하기로 소문이 난 몽골 초원의 말이지만 이런 말을 타고 기민하게 움직이며 전투를 수행하는 용맹하고 강인한 몽골족은 명대 당시 변방의 안정을 위협하는 가장 두려운 상대였던 것이다.

## 5. 나가면서

이상으로 소략하게 <茶馬>시의 試譯과 고증담론을 병행하면서 「茶馬互市」로 대변되는 명대 말기 茶政의 일면을 살펴보았다. 자연에서 산출된 차가 생태환경을 극복하고자 하던 고대 중국인의 일상을 지배하면서 자연스럽게 활발한 문화재생산이 이루어져서 단순한 기호품 수준에서 벗어나 문학과 예술, 종교와 철학의 심미적 소재와 주제로 확산되고, 급기야 산업의 주체적인 동력으로 거시적인 국가경제와 거국적인 국방력 강화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아이템이 되었다. 명대 말기의 차문화와 차산업은 이미 국제적인 통로로 연결되는 시점에까지 도달해 있었기 때문에 매우 광범하고 치밀하게 전국적인 문화산업망이 구축된 상태였고,

재정적인 약세를 만회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물목으로서 이용가치가 격상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茶馬互市’가 갖는 시사적인 의미는 자못 심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우외환에 시달리던 명정부가 ‘茶馬’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여 국력증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는지는 반문의 여지가 있다. 탕현조는 제도적으로 아무리 완벽한 정책이라도 관민의 입장 차이가 있고, 중앙과 지방(변방)의 차이, 한족과 이민족 간의 민족적 갈등과 기질 차이 등이 엄존하는 상황이 만들어내는 미묘한 국면을 예리한 시각으로 지적하며 비판하였다. 탕현조는 묻는다. 이런 제도적 장치가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인가? 왜 사회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국력은 갈수록 약화되어 변방의 이민족이 발호하는데도 제대로 방위조차 못하는가? 탕현조는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질문 속에 이미 해답을 제시한 것이나 진 배 없다.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제 위치에서 제 할 일에 충실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부정부패, 비리, 탐관오리가 횡행하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이 탕현조의 기본적인 식견이었다. 비록 짧은 기간이긴 했지만 탕현조 스스로 목민관으로서 주민들에게 베풀어주고, 보듬어주고자 했던 측은지심이 바로 이 <茶馬>시에 우회적으로 담겨있다고 보인다. 명대말기 차는 이미 사대부계층의 여가와 취미를 위한 귀족적인 향유품이 되긴 했지만 취약한 산업구조 속에서 재정을 충당하는데 효자 노릇을 하던 차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관료집단의 제도적인 뒷받침과 합리적 대응이 절실한 과제였으며, 민간에 만연한 영리본위의 매점매석, 관상협착 등의 부조리 개선이 시급한 과제였으나 이에 대한 마땅한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강력하게 추동하는 정치세력이 등장하지 않는 시대적인 암영이 드리워져 있는 상태였음을 이 <茶馬>시에서 엿보게 된다. 명대 말기부터 ‘茶馬古道’의 화려한 영광은 갈수록 퇴색되고 위축되기 시작했으며 근현대 중국 변방의 원시적인 형태의 통상물류문화의 원형은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 [참고문헌]

- 郭(明) 楊時喬 撰,《四庫全書·史部十三·政書類四·軍政之屬·馬政紀》
- (明) 李東陽 等纂,《明會典·凡易馬》
- (明) 楊一清 撰,《四庫全書·史部六·詔令奏議類二·奏議之屬·關中奏議》
- 徐朔方 箋校,《湯顯祖詩文集》上下,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2.6
- 江西省文學藝術研究所編,《湯顯祖研究論文集》,北京:中國戲劇出版社,1984.5
- 黃文錫 吳鳳雛 著,《湯顯祖傳》,北京:中國戲劇出版社,1986.6
- 徐朔方 著,《湯顯祖評傳》,南京:南京大學出版社,2011.4
- 徐朔方 著,《湯顯祖年譜》(修訂本),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0.5
- 周淑芸,《論明朝對西北邊境的經略》,寧夏大學 碩士學位論文,2005.4
- 呂維新,〈明代茶馬貿易研究〉,《茶葉機械雜誌》,1995,第4期, pp.34~37.
- 何平立,〈略論明代馬政衰敗及對國防影响〉,《軍事歷史研究》,2005,第1期, pp.98~103.
- 王連連,王平平,〈明代民營茶馬互市探析〉,《內蒙古農業大學學報》(社會科學版),2011,第1期(第13卷 總第55期), pp.319~320, 331.
- 馬冠朝,〈明代茶馬貿易官營體制的理論探析〉,《寧夏社會科學》,寧夏大學,2005.7,第4期(總第131期), pp.107~109.
- 何雙全·蔣樹森,〈明清時期甘肅茶馬互市與茶馬古道〉,《絲綢之路》,2011,第2期,(總第195期), pp.5~6.
- 侯德雲,〈湯顯祖與茶〉,《中國茶葉》,2011.7, pp.36~37.
- 周啓成,〈湯顯祖的文學觀〉,《東疆學刊》(哲學社會科學版),1987,第1,2期, pp.56~62.

### <中文提要>

本论文注重考据译析的研究方法来探讨了明代著名文学家汤显祖所写的<茶马>诗的主要内容, 看透明末北方边境的茶马互市由官商勾结及军兵纪纲松懈露呈乱脉相的来龙去脉。

<茶马>诗的主题和题材，跟唐宋以来诸多诗人墨客所写的茶诗不同，注重就事论事的观点，指摘当时边方地区经济通商国防上的种种矛盾，官商结托所引起的恶弊。汤显祖身在宦海中曾目睹科场上的弊端，历尽浮沉，经尝宦途颠沛，终辞官归家。汤显祖深谙茶事，他不仅在剧作中经常提到茶事，还写过许多茶诗。因汤显祖嗜茶，故其堂号为“玉茗堂”，自称为“玉茗堂主人”，“玉茗”为茶的别称，可见汤显祖爱茶之深。

通过这首诗，我们可以了解茶马交易的一些实际情况。例如，诗中“黑茶一何美，羌马一何殊”就指湖南黑茶，当时茶叶用“篋”作计量单位，获得“引”的商人有在茶区收购茶叶的权利，但有一半要交给茶马司，用于茶马交易等等。<茶马>诗就抨击茶政背后的社会难脉情况，透露其平素深患边事，痛惜以茶马挽回国势之政策彻底失败，针对贪赃枉法，横征暴敛，不恤民生之徒，有所借鉴。

明代末叶因茶政马政之流弊愈深，中央政府常年政争所掣，软弱无能而束手无策，过去‘茶马古道’的华丽荣光愈褪色萎缩，近代中国边方原始形态的通商贸易文化随之踪迹落空了。

**关键词：**茶诗 玉茗 茶马互市 茶政 马政 黑茶

투 고 일 : 2013.6.30
심 사 일 : 2013.7.2~8.20
게재확정일 : 2013.8.22